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이 현 주 · 조 동 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서울대학교)

<Abstract>

Lee, Hyunjoo, Cho, Dong-Sung. 2011. The feature of Terminology Standardization and its problems. *Korean Semantics*, 35. The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roject led by KAOAS(Korean Association of Academic Societies) during 2005~2008 has been remained as the largest operation ever in Korea's language policies history : it gave 777,206 standardized terms across 38 subject fields. The standardization committee provided, terms aside, the principle and methodology for standardization, which include term translation and formation rules, harmonization of similar concepts among different fields, and also new adaptation for language norms concerning the words spacing, the epithetic-ㅏ, and the foreign word notation. Certainly ISO standards inspired these principles but the axioms of ISO fell short of providing Korean specific terminological problems. After critically analysing full aspects of term standardization process, this paper will emphasize on the sociolinguistic approach of standardization. Standard has two sides of aspects simultaneously. One is top-down, prescriptive way of normalizing. It is an 'excellent' example, an ideal model of language form that all speakers must follow. The other is bottom-up, spot-related way of standardizing. In this context, standardization is just a management of diversity, a guarantee of linguistic security , cohesiveness, and interchangeability among special domains without

* 본 연구는 2006년도 정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당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erminological confusion.

핵심어: 전문용어(terminology), 표준화(standardization), 중복용어(overlapping term), 국제표준화기구(ISO), 용어의 일의성(terminological monosemy), 용어의 다의성(terminological polysemy)

1. 머리말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학총’이라 칭함)에서 진행하고 국내 40개 분야 학회가 참여한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칭함)의 성과와 사업 진행 중 드러난 표준화의 방법론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 본 사업은 참여한 분야의 분포도로 보나 정비한 용어의 양으로 보나 우리말의 역사상 전문용어에 대한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 틀림없다. 최종적으로 표준화한 용어만 52만 여개에 달하며, ‘학총’의 전신인 ‘학단연’이 수행한 1차 학술용어 정비 사업의 25만 여개(총 18개 분야 참여)와 합하면 77만 개를 훨씬 웃도는 용어가 정비된 셈이다. 전문용어 사업의 성과를 양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재원에 비해 볼 때 놀랄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도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용어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구축 또한 전문용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바, 전문용어 표준화의 결과 및 그 방법론과 원칙은 위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전문용어는 모든 어휘와 마찬가지로 생성, 소멸을 끊임없이 겪는 생명체이므로 용어의

1)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학총(당시 ‘학술단체연합회’)에서 수행한 제1차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며 1차 사업에서 정비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 문학, 심리학, 언어학, 역사학(국사), 철학 (5개 분야)
나. 물성과학 분야 : 가정학, 금속재료공학, 물리학, 수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 (8개 분야)
다. 예체능 분야 : 미술학 (1개 분야)
라. 생명과학 분야 : 간호학, 생물학, 수의학, 한의학 (4개 분야)

지속적 관리 및 보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논의된 용어 정비의 기준, 예를 들어, 표준화 및 조어 원리, 전문용어의 어문규정에의 적용 및 예외의 처리, 학문분야 간 중복되는 용어의 정비 등 방법론적 차원의 기준들은 앞으로의 용어 정비 작업에 보탬이 되리라 사료된다. 사실, 본 사업 이외에도 굵직한 전문용어 정비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표준화의 절차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고 표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본 사업이 제시한 표준화 방법론 역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용어 정비를 위해서 국제 표준 이외에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원리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한 전문용어 표준화의 절차 및 방법론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용어 정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사업의 소개

2.1. 목적 및 방향

본 사업의 목적은 전문용어가 학문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의 단위이자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각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수집, 표준화하는 데 있다. 학문별 용어 표준화를 위하여 본 사업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전제로 삼았다. 첫째는 용어 표준화의 분야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요, 둘째는 표준화의 방법론을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로 학문분야 간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실, 자연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용어집을 꾸준히 발간하는 등 용어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전문용어 정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문용어 표준화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학자들이 다수인 분야도 있었다. 본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에 대한 이러한 분야별 편차를 해

소,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인문, 예술, 사회, 자연, 공학 등 학술분야 전반으로 표준화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각 학회나 용어위원회에서 그간 진행한 용어 표준화는 그 원리와 방법론이 부재하거나 제각기 다르고, 더욱이 국어학적 견지에서 어문규정이거나 우리말 조어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문용어 표준화의 개념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러한 원리 및 방법론적 차원의 이론적 기틀과 실천적 방법론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본 사업에서는 실제 용어 기술을 담당하는 단위 학회를 용어 기술위원회라 칭하고, 이와는 별도로 용어 정비에 필요한 원리와 방법 제정, 전문용어 표기에 대한 표준안과 조어에 대한 국어학적 원칙을 제공하는 용어 원리위원회를 두어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전문용어 정비 방법론의 표준화를 이원적으로 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용어 표준화는 분야 내에서의 합의 도출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분야 또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타분야를 참조하여 분야 간의 공통된 이해를 모색해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하나의 영어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어 나타날 때 이를 중복용어라 일컫고, 분야들끼리 중복되어 쓰이는 용어에 대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안을 상정하였다.

하나의 개념을 다수의 한국어 용어로 지칭할 때 개념과 명칭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분야 간 중복용어 정비의 절차 즉, ‘조화(harmonization)’의 작업이 수반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조화를 표준화의 필수적인 최종단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개념이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중복용어 정비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중복용어 정비는 학제간의 소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분야 간 일관된 용어 사용을 통해 개념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학문 탐구에 장애나 혼란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차원에서는 타 분야 용어의 쓰임새를 참조함으로써 잘못 쓰이고 있던 용어를 수정하거나 용어 조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표준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며 지식, 정보, 기술 등의 전달, 이전, 공유가 일관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용어 구축과 그 사용 사이의 괴리가 무척 큰 것이 사실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사실상(*de facto*)의 용어를 보급하기 위해 각 분야의 대표 또는 모학회 또는 이로부터 추천받은 학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2.2. 사업의 현황 (연구 내용)

2.2.1. 각 학문분야 별 용어 정비

2.2.1.1. 전문용어 정비의 절차

본 사업에 참여한 학문 분야와 해당 학회, 용어의 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종적으로 각 분야 별 표준화된 용어의 수는 총 525,800 개로 집계되었으며 2005년도에 완료된 1차 사업의 용어 251,406 개(18개 분야)와 합하면 총 777,206 개에 이른다.²⁾

◇ 인문과학 및 예술 분야

	분 야	주관학회	용어		분 야	주관학회	용어
1	기호학	한국기호학회	2,092	7	교육학	한국교육학회	14,932
2	서양사학	한국서양사학회	5,502	8	만화애니메이션학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4,348
3	동양사학	동양사학회	3,559	9	음악학	한국음악학회	1,488
4	종교학	한국종교학회	3,127	10	연극학	한국연극학회	5,721
5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258	11	영화학	한국영화학회	2,876
6	지리학	대한지리학회	9,267	12	무용학	대한무용학회	9,434

2) 이는 중복용어 조정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제출한 용어 수와는 차이가 있다.

◇ 사회과학 분야

	분 야	주관학회	용어		분 야	주관학회	용어
1	정치외교학	한국국제정치학회	7,674	5	신문방송학	한국언론학회	5,081
2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10,042	6	경제학	한국경제학회	7,690
3	법학	한국법학교수회	5,923	7	무역학	한국무역학회	5,106
4	행정학	한국행정학회	10,192	8	경영학	한국경영학회	8,057

◇ 자연과학 분야

	분 야	주관학회	용어		분 야	주관학회	용어
1	지질학	대한지질학회	12,194	7	과학기술학	한국과학사학회 외	5,095
2	천문학	한국천문학회	9,007	8	조경학	한국조경학회	10,375
3	대기과학	한국기상학회	12,211	9	의학	대한의사협회/의학회	57,246
4	해양학	한국해양학회	10,131	10	치의학	대한구강악면방사선학회	14,998
5	농림학	한국농업과학협회	140,756	11	약학	대한약학회	7,850
6	수산학	한국수산학회	10,064	12	체육학	한국체육학회	8,332

◇ 공학 분야

	분 야	주관학회	용어		분 야	주관학회	용어
1	기계공학	대한기계학회	20,018	5	건축공학	대한건축학회	5,342
2	산업공학	대한산업공학회	4,992	6	컴퓨터공학	한국정보과학회	11,040
3	콘크리트공학	한국콘크리트학회	5,218	7	항공우주공학	한국항공우주공학회	7,745
4	자원공학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8,436	8	인지과학	한국인지과학회	39,881

각 분야 학회에서 진행한 용어 정비의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다.

- 1단계 : 용어 자료 수집 및 정리
- 2단계 : 용어 표준 초안 마련
- 3단계 : 원리위원회의 검토사항 반영 및 의견 재수렴
- 4단계 : 인접 분야 간, 대분야 내의 중복용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중복용

어 표준안 마련

- 5단계 : 용어 표준 심의
- 6단계 : 용어 확정 및 보고서 발간

1단계에서는 수집 대상이 되는 세부 분야를 정하고 용어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표본이 될 문서(기존 용어사전, 용어집, 일반사전, 교과서/교재, 정기간행물, 학회지 및 박사논문의 주제어 등)에서 용어를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심의를 위한 표준 초안을 마련한다.

- i) 해당 분야에서 여러 용어가 사용되는 것
- ii) 세부 분야 간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
- iii)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이나 일본식 뜻글(간지) 등으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한 것
- iv) 다른 분야와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 것
- v)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용어

일차적으로 용어 기술위원회의 자체 심의와 학회 회원들,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용어 목록은 그 후 원리위원회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되고, 이를 반영하여 각 분야의 최종 표준안이 마련된다. 원리위원회는 첫째, 형식적인 차원에서 용어 기술 시 필요한 정보의 내용, 각종 기호의 사용방법과 표준화(숫자, 부호, 로마자 표기법 등), 복수 표준의 허용 범위,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며 둘째, 국어학적 차원에서 어문 규범, 특히 외래어 표기법, 두음법칙 준수 여부, 사이시옷과 띄어쓰기의 문제, 복합어의 조어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 수정한다.

각 분야별로 표준안이 수립된 후에 분야 간에 중복되는 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2.2절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사업에서 진행한 용어 정비의 주된 골자는 영어 용어 또는 원어 용어(개념이 발생한 해당국 언어로 된 용어)에 대한 우리말 대응어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물론 용어 표준화는 용어의 정의 작업이 선행, 수반되어야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어 용어(또는 원어 용어)와 한국어 용어의 대응 목록을 결과물로 삼았다.3) 첫째 자국에서 발생한 고유한 용어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개념에 대한 우리말 명칭이 혼란을 겪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고 둘째, 본 목록에서의 영어 용어는 영·미국가의 언어로 된 용어라기보다는 개념어로서 기능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동음이의어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4) 다음은 분야별 용어 목록의 예이다. 용어 표준안 심의의 구체적 내용과 파생된 문제점은 아래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B	C	D	E	F	G	H	I	J	K	L
1	분야	소분야	영어용어	한국어용어	영어용어	영어단어·화형형	한국어 변이형	한국어 용어어	한자 표기	비고	
2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BC-D Rule	레이비치디 규칙	Audience-Behavior-Condition-Design Rule					
3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bstraction	추상화						
4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ccommodation	조용						
5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ccusation	추방						
6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ction learning	행동 학습						
7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dvanced organizer	신용조직자						
8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ffective domain	정서의 영역						
9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nchored instruction	안커드교수법	맥락적의 수업					
10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pperception	환각						
11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능력-처리 상호작용	ATI					
12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RCS Model	레이비치스 모델	Attention-Relevance-Confidence-Satisfaction Model					
13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ssimilation	동화						
14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ssociation	연결						
15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ssociation theory	연결이론						
16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ssociative memory	연결 기억						
17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ttitude change	태도변화						
18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attitude measurement	태도 측정						
19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ausality	인과성						
20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ausal operation	인과의 조작						
21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IT	교육원교제시도론	Component Display Theory					
22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lassroom change	교실변화						
23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lassical conditioning	고전적 조건화	대응설보					
24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lassroom model	교실모델 모델						
25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lassroom climate	교실의 분위기						
26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adaptation	인지적 적응						
27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apprenticeship learning	인지적 도제학습						
28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domain	인지적 영역						
29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load theory	인지적부하이론						
30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monitoring	인지적 감시						
31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operation	인지적 조작						
32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strategy	인지적 전략						
33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strategy activators	인지적 전략 자극자						
34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gnitive tool	인지적 도구						
35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llaborative reflection	협력적 성찰						
36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mparative organizers	비교조직자						
37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ncept learning	개념 학습						
38	교육원	교육원	교육원/교육원	concept map	개념도						

- 3) 학종 용어 목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소분야,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원어 용어, 영어 용어의 축약형 또는 완전형, 한국어 동의어, 한국어 변이형, 한자 표기, 비고.
- 본 사업에서는 복수 표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였기에, 한국어 용어란에 병렬 표기하거나 한국어 동의어란을 이용하여 이를 기술하였으며, 한국어 변이형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이나 맞춤법 등과 관련한 제2형이 존재할 경우 기입하도록 하였다. 용어 목록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회색 부분은 선택 사항이다.
- 4) 전문용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용어라도 쓰이는 분야가 다르고 그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면 동음이의어로 취급한다.

2.2.1.2. 전문용어의 선정 및 표준화의 쟁점

2.2.1.2.1. 전문용어의 선정

특정 분야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어휘 집합 또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집합을 전문용어라 정의한다. 그러나 어떠한 어휘 단위가 전문용어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데에 위의 정의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용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판별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전문용어의 지위와 관련된 차원이며, 둘째는 분야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라 하겠다. 한 어휘 단위가 전문용어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첫 번째 차원은 용어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 어휘가 일상어휘와 구분됨으로써 획득되는 것임과 동시에 고유명사와 구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전문용어와 일반 어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컴퓨터’나 ‘예방접종’같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사용되기에 전문용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각각 컴퓨터공학 용어 데이터베이스와 의학 용어집에 수록되어 있는 전문용어이다. ‘사고(事故)’는 의학, 자동차공학, 항공우주공학, 사회학, 심리학 등 8개 학문분야에서 용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행복’은 철학, 무용학 등 4개 분야의 용어이다.⁵⁾ 반면, 우리가 의학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식증’, ‘치질’은 의학용어집에 없으며,⁶⁾ 요새 많이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도 ‘호기성 운동’, ‘산소운동’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문용어의 정의는 전문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떤 한 단어는 그것이 어떤 한 전문분야에서 사용되어야만 용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간단한 예로 ‘원자’와 ‘분자’라는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각각 물리학 용어와 화학 용어로 『국어대사전』(금성)에서는 둘 다 화학 용어로, 각 사전마다 그 전문영역이 달리 표시되어 있다. 예

5)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총 58개 학문 분야의 용어를 정비함.

6) ‘거식증’은 ‘식욕부진’으로 ‘치질’은 ‘치핵’으로 등재됨.

를 들어 ‘뼈bone’[의학], ‘사고accident’[심리학], ‘고장failure’[기계공학], ‘점point’[지리학] 등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들이지만 용어 목록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증대increase’, ‘갭gap’, ‘거주자resident’[경제학] 등은 경제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어휘로 간주되어 삭제되었다. 일반성/전문성은 각 어휘단위가 고유하게 지니는 속성이 아니라 언제나 분야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속성이며 그 분야의 특수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을 가리키면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 할지라도 전문용어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많은 사전학자들이 전문용어집에 고유명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기술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범주의 경계 역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 전문용어에서 인명이나 지명을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족속 또는 민족명, 국가, 종교 명칭, 사건이나 기관/기구명 그리고 법령, 협정의 명칭 등 하나의 개체 또는 고유의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를 무조건 전문용어에서 배제하는 것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예로 고고학이나 역사학, 정치학 등에서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동이족’, ‘말갈족’, ‘프에블로 인디언’, ‘고구려’, ‘프랑스 대혁명’, ‘몬트리올 제3추가의정서’, ‘삼부회’ 등과 같은 어휘단위들은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의 경계에 놓여 있다 하겠으며 이들은 그 양측에서 후속적 논의가 시급하다.

두 번째 차원인 분야 적절성은 용어 수집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분야의 경계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는 그것이 쓰이는 분야 밖에서는 정의할 수 없으므로, 취급해야 할 하위 분야, 세분야를 정함으로써 대상 용어의 규모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과학, 과학기술학, 고고학 등과 같이 복합적 성격을 지닌 분야들은 그 분야 고유의 용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타 분야와 지나치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와 관련성이 높고 많이 사용될 때 용어 목록에 포함시키고, 또한 타 분야 용어라도 해당 분야에서 쓰임이 증가하거나 중요도가 높아진 경우 용어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학 분야는 회계, 상법, 무역, 재무 분야 등의 용어와 상당수 중복되며 정보통신, 환경, 정치 등의 용어도 유입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초기재고beginning inventory’,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과 같은 공통 용어나 ‘정보산

업information industry', '정보화 시대 information society' 등과 같은 유입 용어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지금껏 전문용어 정비는 해당 분야의 용어를 다루되 일상어휘와 대립되고 고유명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위에서 본 것 같이 타 분야 용어나 일상어휘, 고유명사 등이 한 분야의 전문용어와 대립되는 특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2.2.1.2.2. 분야 별 전문용어 표준안의 심의 내용

용어 선별 후 용어 표준화의 구체적 작업은 우선 크게, 용어의 토착화, 여러 경쟁용어 간에 적절한 용어 선정, 용어 조어의 일관성 및 체계성, 잘못 번역이 되거나 용어 개념과 명칭 사이에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 신용어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 졌다. 전문용어는 원칙적으로 일의성, 개념적 체계성, 통용성, 간결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용어는 결코 독립해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체계성이란 용어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용어 자체에 해당 분야의 지식을 이루는 개념 체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어를 만들거나 번역할 때에는 관련 개념어들, 계열체 용어들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용어를 조어하고 외래 용어를 번역할 때에도 이와 같은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의 구체적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용어 토착화 :

ㄱ. 무분별한 외래 차용어 순화 작업

[만화애니메이션]

lettering 레터링 --> 문자도안, 식자

background 백그라운드 --> 배경

ㄴ. 국적불명의 용어 규격화, 일본식 용어 순화

[경제학]

over-the-counter 점두 --> 장외

bullionism 地金主義 --> 重金主義

[천문학]

upper transit 상방정중(上方正中) --> 상방자오선통과 --> 윗자오선통과

- 경쟁용어 중 표준안 도출 :

[기호학] signifiant : 능기, 기표, 기호표현, 시니피앙 ... --> 기표

[치의학] implant : 임플란트, 임프란트, 매립체, 식립체 ... --> 임플란트, 임프란트⁷⁾

- 용어 조어의 일관성⁸⁾ :

ㄱ. 같은 계열, 대립관계의 용어

[기호학]

decoding / encoding : 코드풀기 / 코드엮기

[의학]

7) 현재 치의학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임프란트’ 간의 논쟁이 팽팽하다. 전자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와 ‘대학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 학회명에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는 등 언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본 사업 기간 안에 합의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표준안을 병기하게 되었다.

8) hydraulic이 포함되는 자동차공학 용어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유압’, ‘액압’, ‘액체’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의 용어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압식 브레이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air over hydraulic booster	공기 액압 증가 부스터
air-assisted hydraulic brake	공기보조 유압식 브레이크
air-over-hydraulic brake	공기 액압 증가 브레이크
brake with a combination system, air-over-hydraulic brake	복합 브레이크
electric hydraulic actuator	전기 유압식 액추에이터
electric hydraulic system	전기 유압식
electro-hydraulic system	전기-유압 시스템
hydraulic	유압식
hydraulic actuation	액체 작동
hydraulic air servo	액압 공기 서보
hydraulic brake	액압 브레이크
hydraulic buffer	액체 완충기
hydraulic control system	유압 제어 시스템
hydraulic cylinder	유압 실린더

macro- / micro- : 큰~, 대 / 작은~, 소-

ㄴ. 동일한 용어의 번역⁹⁾

[기계공학]

large vortex / large yielding : 대규모 와류 / 대규모 항복

[의학]

gland --> 샘

glandular acinus --> 샘파리 / glandular cavity --> 샘공간

- 개념 지칭의 정확성 :

ㄱ. 잘못 풀이된 용어

[천문학]

Very Large Array 극대배열전파망원경 --> VLA 전파간섭계

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 구분

[의학]

edema / swelling --> 부종 / 부기

disease / -pathy --> 병, 질환 / 병(증)

mega- : macro-와 달리 mega-는 ‘거대’로 번역.

megalogastria 큰위증--> 거대위증, megacecum 큰막창자증 --> 거대막창자

2.2.1.2.3. 어문규정과 관련한 문제점

전문용어 표준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 또는 문제점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기인한다.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전문용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어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문용어는 전문분야 및 전문가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소통의 도구이기

9) 전문용어의 일관성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꼭 갖춰야 하는 속성으로 꼽고 있지만, 우리말의 특성상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더라도 문맥에 맞게 다른 단어를 써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학용어의 di- 같은 경우는 “두, 겹, 이, 중복, 양, 쌍, 이중...”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무리하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용어를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확한 개념 지칭을 위하여 경우에 맞게 명명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예) diphallia 겹음경증 --> 두음경(증)

diphonia 복음증 --> 이중음성(증), 복음증

diploblastic 이배엽 --> 두배엽

도 하다. 전문용어 사용자, 즉 전문인들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모국어 사용자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는 동시에 하위 전문분야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집단에서 사용되는 언어, 용어로 소통해야 한다. 문제는 위의 두 차원이 상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때 전문가 집단은 분야 내적 소통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 어문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그 분야에서 사용이 정착된 용어를 선택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무지해서라기보다는 전문용어 정비의 방법론 및 고유의 조어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어를 만들고 표준화하는 절차에 언어학자 또는 국어학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국어학자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전문용어를 기계적으로 수정하는 역할이 아닌, 전문가 집단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문용어 형성과 번역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보다 유동적인 언어규범의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문용어와 관련한 어문규정의 대표적 사안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나 앞으로 살펴 볼 사이시옷, 띄어쓰기의 문제를 단순히 어문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오류이며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전문용어가 물론 우리말의 일부이므로 한국어의 어문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겠지만 용어는 단순히 언어의 단위일 뿐 아니라 특정 개념을 지칭하는 지식의 단위이다. 그러므로 용어의 변경과 수정은 언어습관의 변화와 동시에 개념체계의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전문가들 사이에 반발의 강도가 높다. 장음이 인정되지 않는 현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아밀라아제’나 ‘셀룰로오스’ 대신 ‘아밀라제’, ‘셀룰로스’가 옳은 표기이다. 의학 분야에서 오랜 진통 끝에 후자의 표기를 받아들였으나 이것이 일반 언어사전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밀라아제’로, ‘셀룰로스’는 ‘셀룰로스’와 ‘셀룰로오스’로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화학 분야의 화합물 명명법도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화합물 *carboxylic acid*

는 대한화학회에서 ‘카복시산’으로 제안하였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 반면, ‘카르복시산’, ‘카복실산’, ‘카르본산’, ‘카본산’ 등 4개 용어가 채택, 등재되었다. ‘포아송의 법칙Poisson's law’과 ‘푸아송의 법칙(표기법 준수)’, ‘임프란트implant’와 ‘임플란트(표기법 준수)’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용어의 예이다.

반면, 각 분야의 경향이 달라서 동일한 개념임에도 표기법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직접적인 표준화의 대상이 된다. 영어 hydroxy-에 대해 약학 분야는 ‘히이드록시’, 의학분야는 ‘히드록시’, 화학분야는 ‘하이드록시’로 표기하였고 이는 ‘수산화-’라는 우리말로 표준화되었다.¹⁰⁾

화학분야는 영어의 원 발음에 가깝도록 용어 표기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메탄methane이 ‘메세인’(새 화합물 명명법)으로 바뀌었는데, 교과서 편수자료에서는 ‘메테인’으로 제안하였다. 기존의 ‘티오산thioic acid’과 새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싸이오산’은 더 괴리감이 크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용어와 이후에 마주하는 용어의 괴리는 개념의 일관된 이해와 심화에 장애가 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외국어의 형용사 부분을 음차하여 표기할 때 그 형식이 통일되지 못했다. 다음은 <형용사+acid(산)>형태의 영어 합성용어에 대한 한국어의 예이다. 형용사를 발음 나는 그대로 음차하거나 명사형으로 음차하는 경우, 이 둘이 혼재된 경우가 발견된다.¹¹⁾

<혼용>

- ascorbic acid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빅산, 아스코르브산¹²⁾
- oleic acid 올레인산, 올레산
- polycarboxylic acid, 폴리카르복실릭산, 폴리카르복시산
- palmitic acid 팔미틱산, 팔미틴산, 팔미트산

10) 분야별 중복용어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아래 2.2.2 절에서 더 살펴보겠다.

11) -ation(-화) 파생어의 경우도 비슷하다.

carboxylation 카르복실화[의학/치의학], 카르복시화[약학]

12) 대한화학회에서는 ‘아스코르브산’, ‘올레산’, ‘팔미트산’을 올바른 표기로 제시하였으나 이 부분은 중복용어 조정 회의에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통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형용사형 그대로 음차>

acetylmuramic acid 아세틸뮤라믹산

polyacrylic acid 폴리아크릴릭산

<명사형 음차>

phenolic acid 페놀산

ketonic acid 케톤산

- 사이시옷 :

전문용어에서는 ‘덧셈’, ‘나눗셈’, ‘아랫니’, ‘아랫배’ 등과 같이 일반어휘에 서도 쓰이고 전문 분야 안에서도 완전히 정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 옷 원칙이 지켜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 초기부터 학회들은 사이시옷 을 붙이는 것에 대해 심히 반발했었지만, 현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표준 국어대사전에 몇몇 용어가 수록됨으로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 겠다. 그러나 여전히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시옷을 적 용하기에는 전문용어의 경우, 입말보다 글말이 우세하여 그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전문용어 조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괄 적인 사이시옷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사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예들은 사이시옷을 붙인 형태로 표기해야 하는 용 어들이다.

‘~값’ 유형	최대값 --> 최댓값	최소값 --> 최솟값
	초기값 --> 초깃값	절대값 --> 절댓값
	대푯값 --> 대푯값	고유값 --> 고유값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됨.)	

	상대값 --> 상댓값	임계값 --> 임곗값
‘~길’ 유형	자리길(=궤도orbit) --> 자릿길	
‘~살’	전자살(electron beam) --> 전자살	
	분자살(molecular beam) --> 분자살	

- 띄어쓰기13) :

요즘 법률명과 의학용어의 경우, 지나친 붙여 쓰기로 인한 의미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분야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문제를 규정의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만들고 다루는 데에 필요한 원리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더 나아가 전문용어에서 띄어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전문용어에서의 띄어쓰기의 실재를 살펴보면, 일괄적으로 붙여 쓰기를 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대체로 뚜렷한 규정이나 법칙 없이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혼용되고 있다. 『생물학사전』과 『과학기술용어집』에는 모두 붙여 쓰고 있으며, 법률용어도 붙여 쓰고 있다. 의학, 수의학, 약학 분야도 대부분 붙여 쓰기를 하고 있다. 북한의 전문용어도 모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듯 전문용어의 붙여 쓰기 경향은 많은 학자들 속에서도 검증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 전공자들에게 ‘문화연구’와 ‘문화 연구’는 다른 의미로 느껴진다고 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붙여 쓴 경우에는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말하는 이론 유형으로서 한 범주로 인식하게 되고, 띄어 쓴 경우에는 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어구를 만들 때 문제가 더 드러나게 되는데, ‘20세기 문화 연구’는 오히려 개념적 모호성을 띠어 20세기 문화에 대한 연구인지 20세기에 이루어진 문화 연구인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 사회 언어학계’의 예도 마찬가지

13) 현행 띄어쓰기는 맞춤법 규정 제 5장 (제 41항~50항)에 따르고 있으며, 전문 용어에 관한 것은 제 50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병 백혈병	만성골수병백혈병
관상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급성 복막염	급성복막염
두 팔 들어 가슴 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이다.

이외에도 두음법칙의 적용, 부호의 쓰임 등은 전문용어 정비 원칙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인데, 이에 대한 논의와 어문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표준화 위원회의 보고서 및 저서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2.2. 분야 간 중복용어 정비 및 표준화

2.2.2.1. 중복용어 정비의 계량적 성과 및 지침

본 사업에서 분야 별 용어 표준화 이외에 또 중점을 두었던 것은 분야들 간의 교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분야 간 중복용어의 표준화 작업이다. 중복용어에 대한 문제는 이공계 분야에서 먼저 제기되었는데, 학문 연구가 점차 학제적 성격을 띠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용어의 혼란을 가장 먼저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개념이 동일한 것인데 그에 대한 명칭이 여럿일 때, 또한 역으로 개념은 상이한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유사할 때, 지식의 정확한 전달과 공유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편의상 2개 이상의 학술 전문분야에서 공통으로 영어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용어라 하고 이 중에서 우리말 용어가 서로 다를 때 표준화의 쟁점이 되는 용어로 간주하였다. 집계현황을 보면, 하나의 영어 용어에 대하여 우리말 대응어가 2~35개까지 발견되었으며 영어 중복용어가 총 29,066개,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어가 총 99,151개로 집계되었다. 중복용어 조정은 총 4개의 대분야, 즉 인문과학과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별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자연과학의 경우, 분야 간 중복성이 높은 세 개의 하위그룹으로 재분류해 추진되었다. 조정 작업의 결과, 한국어 중복용어는 54,919개로 줄었다.

중복용어 집계 현황 :

대분야	총 중복용어 수	통일된 중복용어 수	표준화 대상 영어 중복용어 수
인문과학	2,797 개	408 개	(2~35개) 2,389 개
사회과학	3,868 개	1,476 개	(2~22개) 2,392 개
공학	7,066 개	2,645 개	(2~18개) 4,421 개
자연과학	23,050 개	7,899 개	(2~23개) 15,151 개 (4~23개) 4,713 개
합계	36,781 개	12,428 개	13,915 개

중복용어 조정 후 용어 집계 상황 :

대분야	심의 전 한국어 중복용어 수	심의 후 한국어 중복용어 수
인문과학	16,431 개	4,403 개
사회과학	11,977 개	9,612 개
공학	19,211 개	13,569 개
자연과학	51,532 개	27,335 개
합계	99,151 개	54,919 개

본 사업에서는 중복용어 정비를 위해 크게 6가지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중복용어 조정의 경우 이전 분야별 표준화 작업보다 더 복수 표준에 대한 융통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 (i) 용어 간 개념적 동일성을 우선 파악하되 분야 별 의미 분화를 인정함.
- (ii) 기초과학, 모학문의 용어, 분과되기 이전 분야의 용어를 기준으로 함.
- (iii) 용어의 원 발생지를 따름.
- (iv) 많은 분야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것, 분야 빈도수가 높은 것을 선호함.
- (v) 무분별한 외래어 차용을 피하고 우리말 용어를 선호함.
- (vi) 어문규정에 맞는 표기법을 따르되 굳어진 표현을 병기할 수 있음.

중복용어의 정비 작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사업이 그 출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

제가 해결되기에는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미비점이 있었다.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2.2.2. 중복용어의 의미적 문제

의미적 측면에서 볼 때, 분야들 사이에 발생하는 중복용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하나의 개념이 여러 동의어들로 지칭될 때 다른 개념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고 둘째는 개념상의 차이가 명칭의 차원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로는 영어 용어 abortive infection이나 affirmative action을, 두 번째 예로는 annealing, quenching, normalizing을 들 수 있겠다. abortive infection은 밀접한 분야들인 생물학, 의학, 수의학 등에서 ‘부전/불발/불임/불현감염’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affirmative action은 서양사,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철학, 교육학 등 각 분야마다 의역을 하여 조금씩 다른 용어를 표준화하였다. 이렇듯 인접 분야 간에 공통으로 쓰이되 우리말 용어가 가지각색이면, 학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개념 자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의학, 수의학 등에서 쓰이는 ‘불현감염’은 동일한 분야에서 inapparent infection 이라는 다른 개념의 용어에 부여된 명칭이기도 하므로 혼동의 여지가 많다.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수	한국어 용어	중분야
1	abortive infection	4	부전감염	생물학
2	abortive infection	4	불발감염	농업과학, 수의학, 의학
3	abortive infection	4	불임감염	생물학
4	abortive infection	4	불현감염	수의학, 의학, 치의학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수	한국어 용어	중분야
1	Affirmative Action	3	소수세력 우대정책	서양사
2	Affirmative Action	3	소수세력 차별시정조치	서양사
3	Affirmative Action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서양사
1	affirmative action	9	긍정적 행동	체육학
2	affirmative action	9	소수계 우대정책	무용학
3	affirmative action	9	소수집단우대정책	행정학
4	affirmative action	9	약자보호정책	사회학
5	affirmative action	9	적극적 차별보상조치	정치외교학
6	affirmative action	9	차별수정조치	철학
7	affirmative action	9	차별금지조치	가정학
8	affirmative action	9	차별철폐조치	농업과학
9	affirmative action	9	차별철폐조치	교육학

이같이 다른 개념들을 같은 우리말 용어들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표에 의하면 물리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등에서는 ‘담금질’이 quenching을 뜻한다면 전기 분야에서는 annealing을 가리키며, 물리학에서는 annealing이 ‘불림’인데 금속공학에서는 normalizing이 ‘불림’이다. 이는 단순히 영·한 대응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어 내에서 용어 선택과 변별력의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annealing (소둔)	[금속공학]열풀림, 열풀림질 [물리]불림, 설달금 [전기]담금질, 어닐링, 열처리 [기계]어닐링 [네이버]풀림, 어닐링 [...]
quenching (소입)	[금속]담금질, 급랭 [물리]담금질, 급냉 [전기]퀵칭, 담금질 [기계]담금, 담금질 [네이버]담금질 [...]
tempering (소려)	[금속]템퍼링, 되담금 [물리]버림, 되담금 [기계]템퍼링 [네이버]뜨임 [...]
normalizing (소준)	[금속]불림, 노멀라이징, 노르말라이징 [기계]노멀라이징 [네이버]불림 [...]

2.2.2.3. 중복용어의 유형 및 사례

중복용어가 나타나는 양상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를 들어, 영어 용어 **doublet**은 서로 다른 9개의 분야에서 23개의 한국어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이중’ 또는 ‘2중’과 같은 표기 방식의 차이, ‘더블렛’, ‘더블릿’, ‘두블레’ 등과 같은 외래어 표기법 상의 변이 또는 오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자어(‘이중’)와 고유어(‘겹’ 또는 ‘두겹’)에 대한 분야 선호도의 차이 그리고 의미 차원에서 다양한 지시체에 따른 의미 분화 등으로 용어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동의어/다의어 등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용어 번호	영어 용어	한국어 용어 수	한국어 용어	사용 분야 수	중분야
1	doublet	23	(1)이중선 (2)이중항 (3)이중상태 (4)두블레	1	1차 표준화
2	doublet	23	2비트 바이트	1	인지과학
3	doublet	23	2중상태	1	기계
4	doublet	23	2중선	1	기계
5	doublet	23	겹렌즈	1	농업과학
6	doublet	23	겹미세소관	1	농업과학
7	doublet	23	겹상태	1	농업과학
8	doublet	23	겹샘	1	농업과학
9	doublet	23	겹선	1	농업과학
10	doublet	23	겹항	1	농업과학
11	doublet	23	더블렛	1	인지과학
12	doublet	23	더블릿	2	기계,농업과학
13	doublet	23	두겹선	1	물리학
14	doublet	23	두겹항	1	물리학
15	doublet	23	두블레	1	가정학
16	doublet	23	이중상태	2	화학,물리학
17	doublet	23	이중선	2	화학,물리학
18	doublet	23	이중어	2	언어학,인지과학
19	doublet	23	이중음	1	인지과학
20	doublet	23	이중항	2	화학,물리학
21	doublet	23	이항요소	2	자원공학,지질학
22	doublet	23	자매어	2	언어학,인지과학
23	doublet	23	짝	2	언어학,인지과학

중복용어 정비의 가장 첫 단계는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가 과연 그 개념이 동일한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즉, 영어 용어가 동일할 때 개념이 동일한지 그리고 그 개념의 동일성 또는 상이성을 한국어 용어가 잘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 때 중복용어의 양상을 5가지 유형으로 형식화해 보았다.

- 영어 용어 동일, 개념 동일, 한국어 용어 상이
- 영어 용어 동일, 개념 동일, 한국어 용어 유사
-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한국어 용어 상이
-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한국어 용어 유사
-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한국어 용어 동일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영어 용어 동일, 개념 동일, 한국어 용어 상이

a.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catecholamine [의,인지/신경] 카테콜아민
 catecholamine [치의] 카테콜라민

barbiturate [의,인지/심리] 바르비투르산염
 barbiturate [치의] 바르비튜레이트

b. 영어 용어 발음 상 차이

cytokine [인지/신경] 사이토카인
 cytokine [의,치의] 시토카인

d. 외래어 대 우리말

controller [경영/회계] 컨트롤러
 controller [인지/컴퓨터] 제어기

e. 직역 대 의역

cell adhesion molecule [인지/신경] 세포 결합 단백질
 cell adhesion molecule [의,치의] 세포부착분자

context-sensitive language [인지/컴퓨터] 문맥민감언어
 context-sensitive language [인지/언어] 문맥의존언어

(ii) 영어 용어 동일, 개념 동일, 한국어 용어 유사

a. 아직 명확하게 정착된 용어가 없어 분야 별로 달리 명명하는 경우

action learning [교육, 행정] 실천학습
 action learning [경영] 실행학습
 action learning [간호, 지리] 행동학습

placebo [가정, 생물, 의, 농업, 치의] 속임약¹⁴⁾
 placebo [가정, 치의] 무효약
 placebo [간호, 심리, 과학기술, 생물, 약, 인지, 체육] 위약
 placebo [인지] 위약효과
 placebo [의] 헛약

b. 분야마다 정착된 용어가 다른 경우

conduct disorder [인지/언어] 행동장애
 conduct disorder [교육/교육상담, 특수교육] 품행장애

cost(-)benefit analysis [조경/관광, 조경일반]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경제, 경영/경영전략]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경영/회계] 비용-효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경영/경영정보] 비용효과분석
 cost(-)benefit analysis [정치외교/비교정치]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교육/교육재정] 비용-수익분석

cultural deprivation [인지/언어] 문화적 박탈
 cultural deprivation [교육/교육사회, 교육심리] 문화실조

(iii)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한국어 용어 상이

a. 영어 용어의 다의성으로 인한 여러 용어 명칭

14) 사회학은 ‘플라시보’, 의학은 ‘플라세보’로 표기하기도 한다.

acute [의, 생물, 간호, 가정, 치의, 농업] 급성의, 급성
acute [언어] 양음성
acute [언어] 예음, 중음

bed [기계] 대
bed [건축] 먼
bed [농업] 못자리, 이랑
bed [의, 수의] 바탕
bed [농업, 산업] 받침대
bed [수의, 의, 농업] 병상
bed [자동차, 기계, 농업] 베드
bed [화학, 지질] 층
bed [의, 수의] 침상
bed [농업] 하상

b. 영어 용어의 다명명성으로 인한 여러 용어 명칭(지시체에 따라 달리 분화)

actuality 1. 현장성 2. 현실태 [철학]

adaptor 1. 변환가 2. 연결관, 유도관 3. 연결기, 연결자 4. 적응기 5. 적응인자

additive 1. 덧셈의, 가법적인 2. 더하기, 추가 3. 첨가물, 첨가제 4. 혼합재 [건축, 토목]

(iv)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한국어 용어 유사

coalescence [인지/언어] 융합

coalescence [대기/대기물리] 병합

track [조경/시공관리] 궤도

track [대기/기상] 경로

bandwidth [기계] 대역폭

bandwidth [대기] 띠틈비

consolidation [인지/신경] 공고화

consolidation [치의] 경화

(v) 영어 용어 동일, 개념 상이, 영어 용어 동일

- a. 영어 단어의 다의성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적절치 않은 의미를 기재.
 congestion [의,치의] 출혈
 congestion [인지,언어] 충혈, 혼잡

위에서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은 분야에 상관없이 한 가지 의미를 지칭한다는 것이고 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은 영어 용어 자체가 다의어 또는 동음이의어이어서 다른 우리말 용어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이 유사하더라도 분야별로 달리 정의되는 예도 해당된다. 즉, ‘허파파리’[의,생물], ‘치조’[치의], ‘내강’[지질] 등을 뜻하는 다의어 *alveolus*도 상이한 개념을 지닌 영어 중복용어이고 ‘붕괴’, ‘파열’ 등과 대응되는 *crash*도 비록 우리말 용어가 유사 개념을 띠는 것 같지만 해당 분야(전자는 자연과학, 후자는 언어학 용어)에 따라 서로 달리 정의되므로 상이한 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겠다. 그렇지만 개념의 동일성, 상이성을 구분짓는 일은 여전히 까다로운 일이다. 액체나 기체가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turbulent flow*는 과연 아래 각 분야마다 개념이 동일한 것인가 상이한 것인가, *barbarians*의 다양한 명칭은 과연 상이한 개념을 가리키는 것인가 동일한 개념에 해당되는가. 이에 대한 결론은 그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이다.

- turbulent flow* [화학,가정,물리,건축,기계,농업,대기,수산,자원,지질,체육,항공, 해양, 지리] 난류
- turbulent flow* [물리] 막흐름
- turbulent flow* [화학] 맴돌이
- turbulent flow* [수의,의,치의] 소용돌이 흐름
- turbulent flow* [수의,의,치의] 와류

- barbarians* [동양사] 만이, 야만족
- barbarians* [서양사] 바르바로이, 이방인, 이어족
- barbarians* [사회학] 야만인

분야 간 중복용어 정비는 시간적 제한, 표준화 회의 참석자의 분야 대표성

에 대한 부담, 분야별로 이미 정착된 용어에 대한 단호한 입장 등 개념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적 표준화기구들에서 주장하는 용어의 일의성, 동의어 배제 원칙, 어문규정의 원칙 등이 실제 표준화 작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모든 언어 정책이 직면한 문제이지만, 현장의 용어 현실을 반영하고 실제 쓰이는 용례를 존중할 것인가(*de facto*) 혹은 규범적, 제도적, 계도적 목적(*de jure*)의 표준안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2.2.1절에서 제시한 학종의 중복용어 지침은 학술분야에서 정착되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혼동의 여지가 있는 중복용어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 3장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들이 제시한 표준화 원리를 간략히 살펴보고, 학종 표준화 사업의 성과 및 경험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표준화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3. 표준화의 원리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사실 모든 분야에는 고유한 전문용어가 있고 용어의 혼동이 해당 분야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전문용어 표준화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앞 장에서 기술한 성과가 있었지만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용어 정비에 나선 각 분야의 학회들이 전반적으로 부딪히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전문용어 정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인식 풍토 :
 - 1) 전문용어 표준화와 대한 요구 및 필요성 인식 저조
 - 2) 표준 용어 사용에 대한 실천적 의지 미약
 - 3) 고유어 용어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운 한자어 조어에 대한 거부감 양립
 - 4) 외래어 표기법과 띄어쓰기, 사이시옷 등 맞춤법은 기술적이고 부차적인 차원이며 전문용어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이라는 인식. 특히, 일부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5) 전문용어는 우선적으로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라는 인식

이에 따라 표준화의 원리나 지침은 왜 표준화를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총론에서부터 우리말 어문규정 속에서 전문용어를 재조명하는 전문용어 조어의 원칙을 두루 다루어야 한다.¹⁵⁾

또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실질적인 질문들에도 답해야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표준화해야 하는지, 즉 어떤 단어가 전문용어인지 일반어인지,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의 경계가 명확한지, 어떤 용어가 이 분야에 속하는지 다른 인접 분야의 용어인지 등을 판별하는 문제와 모든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는지 즉, 음차, 직역, 의역 등 번역방식의 선택에 대한 판단과 표준화란 일원화인지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화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인지 등의 질문에 당면해있는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대표적인 용어 정비 원리와 그 기반이 되는 철학을 분석한 후, 각 학계나 전문영역의 의사소통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전문용어 정비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1. 용어 표준화와 관련된 문헌 자료 연구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각국의 표준화 기구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용어 정비 방법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그 중, 전문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SO 704:2000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ISO 1087-1: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15) 전문용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표준어와 표준용어, 일반 언어규범(linguistic norm)과 용어의 규범(terminological norm)이 동일한 논리로 규정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H. Walter(1988:306)는 “기술적 용어의 문제는 엄밀한 의미의 언어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ISO 10241: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ISO 860: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¹⁶⁾

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en/fr/ru)

ISO 704에서는 표준화된 용어가 관련 분야의 개념체계에 대응되는 일관성 있는 용어체계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표명하면서 용어란 정확해야 하고 또한 분명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ISO의 모든 규준에서 전문용어의 일의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하며,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명칭이 표준안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와 동의관계를 이루는 다른 용어들은 모두 표준안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언어의 동의성이 전문용어의 일의성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거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ISO 704에서도 용어의 지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권고 용어(표준 용어)와 비추천 용어(표준안에서 배제된 용어) 사이에 허용 용어(허용 가능한 권고 용어와의 동의어)를 두어 동의어를 참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의 여러 용어 표준화 관련 지침에서도 ISO 704의 용어에 대한 객관주의적 시각을 따르고 있다.

ISO 1087은 전문용어와 관련한 기본 개념을 다루는 술어집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표준화와 관련된 ‘용어정비(terminology planning/aménagement terminologique)’, ‘용어조화(term harmonization/harmonisation des termes)’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전문용어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ISO 10241은 표준 용어 및 용어 규준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용어 자료 수집, 범위, 적절한 개수, 대상 집단, 개념체계 설립 및 검토 방법, 정의 방식, 용어 조어와 선택, 용어 자료나 사전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작업 원칙이나 표준화 방법론을 일관되게 구축, 적용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특정 분야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사한 분야 간에도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16) ISO 860 표준의 초판이 발행된 1968년 당시는 ‘조화harmonization’이라는 표현이 아닌, ‘일치unification’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ISO 860은 위의 문서 중 가장 최근의 것인데,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조화’의 개념에 내용 전체를 할당하고 있다. 조화 역시 개념의 차원과 용어(명칭)의 차원으로 구분하며, 개념조화는 ‘서로 관련이 있고 공통된 의미가 있는 둘 이상의 용어 중에서 직업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이 있는 경우 사소한 차이들을 없애는 목적으로 용어를 대응시키는 것’(ISO 860 2007:1)을 말한다. 용어조화란 조화된 개념에 부합하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언어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언어의 용어와 대응시킬 때 필요할 수도 있다. 조화가 표준화 절차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ISO와 IEC가 공동으로 정리한 지침서 역시 표준화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 용어집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는 용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품,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포괄한다.

3.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화 방향의 특성 및 한계

ISO에 의하면 전문용어 표준화란 표준화된 개념의 표상에 꼭 필요한 일의성을 띤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동의어를 줄이고 용어의 중의성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다. 표준화에 대한 ISO의 입장은 용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뷔스터(E. Wüster)가 1936년 ISO의 전신인 ISA(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ssociation)에 기술위원회 TC37¹⁷⁾을 설치하면서 확립되었는데, 이 때 뷔스터의 입장은 “순전히 방법론적이고 규범적인 차원”(Rondeau 1984:6)이었으며, 용어론은 과학기술의 의사소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중의성을 제거하고 체계성을 수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공학도이자 에스페란토어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뷔스터는 수학공식만큼이나 의미전달에 오해가 없고 또 보편적인 기호로서 용어를 꿈꿨으며 이러한 시각은 TC37의 작업과 그 이후 비엔나 학파라 불리는 ISO, Infoterm¹⁸⁾, 비엔나 대

17) 이 기술위원회는 “전문용어, 원리와 조정(Terminology, principle and coordination)”의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 ISO/TC/37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 절에서 살펴본 일부 규정집을 발간, 개정하고 있다.

18) ISO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전문용어 센터로서 1971년 UNESCO가 설립한 산

학 등의 학술연구 및 규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후 70년대에 언어학, 논리학과의 관계 하에 용어론을 학제적 성격의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할 때에도¹⁹⁾ 초기 용어에 대한 관점, 즉 개념과 명칭의 분리, 명명론적 입장(*onomasiology*), 용어의 일의성, 일지시성, 다의어 및 동의어의 배제 등은 예외 없이 고수하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ISO의 전문용어 표준화 원리는 국내에 수차례 소개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비엔나 학과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관점만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 원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2.1. 용어에 대한 개념의 우위

용어보다 개념을 우위에 두는 개념적 관점은 전통적인 용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념이 용어보다 선행하여 존재하며 개념체계의 구성이 용어체계의 구성보다 선행함을 함축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과 개념체계를 용어가 어떻게 그 위계에 따라 잘 반영하는지 모색하는 것이 용어론이며, 그 결과 용어는 개념의 이름표이자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도구로 간주된다.²⁰⁾ 즉, 용어론이 어의적, 의미론적 접근이 아닌 명명론적 접근법을 취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뷔스터의 제자이자 *Infoterm*의 수장이었던 펠베르는 “개념은 용어와 독립되어 존재하며 용어의 의미를 구성한다”(Felber, H. 1987:87)고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과 용어 간의 분리 및 개념의 우선성은 개념과 형식(명칭)을

하기구이다. 뷬스터가 역시 창립위원이며 그 뒤를 이은 펠베르(H. Felber)가 “전문용어 백서”(1987)를 내면서 비엔나 학과의 전통적 용어론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19) Wüster, E. (1974) “L'étude scientifique générale de la terminologie, zone frontalière entre la linguistique, la logique, l'ontologie, l'informatique et les sciences des choses” in *Textes choisis de terminologie*, (1981) ed. G. Rondeau & H. Felber, Gistern, Québec.

20) TC37의 첫 번째 저작인 704규준(ISO 704:2000)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규정집에는 개념과 관련된 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개념의 속성 및 개념체계 구성에 대한 내용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개념을 잘 드러내기 위한 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에 뒤이어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의 하나로서 언어기호인 용어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용어는 비언어적 기호인 부호나 도식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명칭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분리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소쉬르의 언어관과 대립되는 것으로서²¹⁾ 개념과 용어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념의 명칭으로서의 용어뿐 아니라 명칭이 개념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언어기호 본연의 속성이 도외시였으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기술된 표준화의 원리 또한 개념 및 개념체계의 표준화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ISO로 대변되는 표준화 방법론은 개념상의 표준화 이외에 용어 자체의 조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며, 개념 생성보다 개념의 유입이 더 많은 국가들에게 필요한 원칙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2.2. 개념과 용어의 일의성(monosemy), 일지시성(monoreferentiality)

개념에 대한 언어적 도구로서 용어를 간주한다는 앞 절의 설명에 덧붙여 개념과 용어에 대해 주장된 두 번째 속성은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명칭이 부여되고 하나의 명칭은 하나의 개념만을 환기해야 한다는 일의성의 원칙이다.(ISO 704 2000:26, ISO 10241 1992:2, Rondeau 1984:21 등) 명칭과 개념 간의 일대일 대응이라는 ISO의 공리는 언어의 다의성과 경제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본성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이 원칙에 따라 자연언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중의성 및 동의성을 배제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뷔스터는 이를 위해 용어론과 일반 언어학을 철저히 대립시키게 된다.(Wüster, E. 1981:67) 이 때 전문용어의 표준화란 일반 언어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를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일원성(unification)을 획득하는 것”(ibid)이며, 비엔나 학파에게 전문용어론이란 궁극적으로 일의성과 일지시정을 목표로 하는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용어집 또는 용어사전 편찬에 다름이 아니었던 것이다.

ISO 860에서 언급한 조화의 개념은 본 사업에서의 중복용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것이다. 즉, 용어의 의미에 직업적, 학문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ISO는 일의성의

21) Gaudin, F.(1993:25-26), Temmerman, R.(2000:60-66), Depecker, L.(2003) 등이 대표적으로 뷔스터의 이러한 비언어학적 관점을 비판하였다.

원칙하에 ‘사소한 차이를 없애고자(eliminate minor differences)’ 한다. 우리는 앞에서 공통된 개념이라도 분야에 따라 달리 분화된 용어의 예를 많이 보았다. 또, 같은 분야라도 하위분야들 간에 용어를 달리 쓰는 경우가 있고 같은 분야라도 학파에 따라 주창하는 용어가 다르기도 하다. 동일한 분야라도 그것이 학술영역에서 쓰이는지 직업 현장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언어의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 표준에 대한 유연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ISO는 말뭉치를 통한 실제 용어자료 구축과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수용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용어 정비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용어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변한 것은 아니다. 표준화가 하향적인 통일화, 일원화, 올바른 형식,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 화자의 입장에서 언어적 안정성, 의사소통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이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전문용어 표준화 방법론의 모색

4.1. 표준화의 두 가지 의미

일반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 표준용어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때의 표준이 무엇을 뜻하는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풀이된 ‘표준어’의 정의를 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수준 있는 언어로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표준어(標準語)「명사」『언어』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말·표준말. [밑줄 친 부분은 필자 강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표준용어’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있는 언어이되 공

통으로 쓰여야 할 것이다. 디키키디리(Diki-Kidiri, M. 2008:101~106)는 규범(norm)과 표준(standard), 규범화(normaliz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구분하여 전자는 ‘우수함, 탁월함’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모범, 기준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공통’, ‘공동’, ‘평균’의 의미라고 설파한다. 또한 존중하고 따라야할 규범을 세우는 규범화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쓰임을 유발하는 표준화는 언어 정비의 두 측면이라고 말하면서 규범의 정착을 위해 좋은 표준을 개발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말에서는 표준, 표준화, 표준어라는 어휘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²²⁾ ‘교양 있는’, ‘규범’ 등의 표현에서 모범의 의미를, ‘공용어’, ‘공통적으로’, ‘두루’ 쓰인다는 설명에서 사용이라는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 어휘론자이자 용어학자인 길베르(Guilbert, L)는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normalisation 대신에 ‘norme(규범) + maison(집, 직장, 현장)’을 조합한 normaison 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표준화가 실제 사용 현장과 동떨어진 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도 모든 표준은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규범이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표준화에 대한 동의는 표준화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의 토론과 설득, 협의 그리고 최종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기본 바탕은 화자들의 사용과 실제 용례일 것이다. 표준용어가 많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표준이 의무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 분야외적 상호연계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본 사업 역시 학총이 주관한 것이지만 실제 용어 표준화 작업은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주체이자 언어 주체인 학회가 주도하였다. 용어의 사용자, 전문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자발적인 자정 장치를 발동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22) [표준국어대사전]

표준01(標準) 「명사」

「1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준거02(準據).

「2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4.2. 전문용어 표준화와 어문규정의 문제

전문용어 내에서의 어문규정의 문제는 분야 전문가들과 국어 규범론자들 사이에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국어 규범론자에게 전문용어는 일반어휘와 같은 층위에서 일반어의 어문규정에 귀속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규정 안에 전문용어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한글맞춤법 중 띄어쓰기와 관련한 제 50항뿐이고 규범적 관점에서는 전문용어를 위해 따로 특별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거나 법 해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UNESCO가 배포하는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를 참고해 보면, 언어정책 하에 일반어에 대한 계획과 전문어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문용어는 신개념 생성의 양과 속도로 인해서 비단 우리말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조어 양산의 온상이며 그 결과 일반 어문규정이 다 풀어내지 못하는 형태, 통사적 다양성과 불일치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언어 규범에 무리하게 전문용어를 종속시키는 정책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맞춤법이나 철자, 어원의 차원을 넘어선 전문용어 정비의 방향과 용어 조어에 대한 최대한의 구체적 방법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각 언어의 실질적 상황과 전문가 집단의 문화에 따른 정비론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학총의 전문용어 표준화 원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몇 가지 사례 중 사이시옷과 외래어 표기에 관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김하수(2006)는 ‘맞춤법의 일반 규정은 형태론적, 음운론적 시각임에 반하여, 사이시옷 규정은 지나치게 어원적’이라고 지적하였는데²³⁾, 원리위원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사이시옷을 넣어야 할 경우, 전문용어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도 허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근거: 1) 전문용어는 말보다 글에서 나타나는 단위라는 점(형태표기 원칙 적용).

23) 2006년 10월 26일 원리위원회 회의 발표문, 김하수 “전문용어 표준화에 있어서의 언어 규범 문제”.

- 2) 표준발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 3) 전문용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인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예가 더 많다는 점.
- 4) 사이시옷이 들어간 용어의 경우 별도의 어휘목록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²⁴⁾

그리고 이미 사이시옷을 규범적 측면이 아닌 실용적 측면, 즉 선택의 문제로 보고 생략한 예가 있다. 바로 도록표지판의 ‘~길’의 예이다.

<2001년 여름 국어심의회>

‘○○여곳길/○○여고길’경찰섯길/경찰서길’의 표기원칙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새 주소 부여사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이름 붙이는 도로가 사이시옷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 명명하는 도로명 ‘○○길’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창덕여고길’이 채택됐다.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도 동일한 영어 단어에 대해 개념적 차이를 반영하여 음차를 달리 한 예가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

- 슛(shot, 영화) ↔ 샷(shot, 골프)
- 도트(dot, 기계) ↔ 닷(dot, 정보 통신)
- 타이프(type, 타자기) ↔ 타입(type, 일상)
- 커트(cut, 운동) ↔ 컷(cut, 영화)

사실, 지금까지 전문용어에 대한 국어학계의 관심은 매우 국지적이었다. 용어론의 이론적 기반과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한 조어법과 용어현실을 반영한 어문규정의 세분화와 그 적용방안의 탐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문용어 표준화는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분야 전문가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갖

24) 한국학술단체연합회(2007.02)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제1차 공청회 자료집』, p.29.

는 사람들이 표준용어를 쉽게 선택해 쓰도록 지속성,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학종에서 진행된 학술 전문용어 사업의 진행 절차와 표준화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장, 단점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전문용어 정비 작업에 보탬을 주고자 하였다. 표준화한 77만 여개의 전문용어 목록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표준화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방법론적 질문들과 전문용어의 범위, 전문용어에서의 동의성, 다의성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처리 방안, 중복용어의 여러 유형과 의미적 과제, 그리고 어문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전문용어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전문용어 정비에 대한 요구가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방법론 또한 이에 치중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방법론이 국내에 우선적으로 소개되었는데, ISO의 규범적 방법론의 유래와 속성을 고찰함으로써 그 한계점도 지적하고자 하였다. 전문용어 표준화가 가장 이상적 형태의 용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을 관리하고 언어적 안정성과 적절성을 제공하는 것이라 보고 상호이해와 상호교환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운영되는 실천적 전략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사실 용어 형성 원리는 국제적 표준보다 국가적 차원의 표준으로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을 직접 명명하는 1차적 용어 형성 과정뿐 아니라 개념이 외국어(특히 영어)의 매개를 통해 유입되는 2차적 용어 형성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용어 번역 및 조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는 표준용어의 목록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본 사업과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주, 이현주 외 (2007), 「전문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태학사.
- 고석주, 이현주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 문화관광부 (1998~2005),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결과 보고서-전문용어 정비」.
- 송영빈 (2000), "전문용어학의 제문제", 전문용어연구1, KORTERM.
- 송희성 (2003),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서의 학술용어 정비 사업,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하계학술대회.
- 이현주 (2007),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새국어생활」 17-1호, 국립국어원.
- 조남호 (2003), "국어 정책의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하계학술대회.
- 지제근 (2000), 우리나라 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 현황과 필요성, 「전문용어연구1」, KORTERM.
- 최기선 (2003), "학술용어 정비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의 정비 현황",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하계학술대회.
- 한국학술단체연합회 (2004), 학술용어 표준화 연구 중간발표회/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연합회 (2005),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중간발표회/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6),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중간발표회/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6),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7a),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2007-1차 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07b),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중간발표회/2007-2차 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c),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2007-3차 공청회 자료집.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8),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 홍윤표 (2003), "학술용어의 정비에 대한 의견",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하계학술대회.
- Cabré, M. T. (1999), *Terminology: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diki-Kidiri, M. (2008) "Norme, culture et communication" in *Le vocabulaire scientifique dans les langues africaines. Pour une approche culturelle de la terminology*, dir. M. Diki-Kidiri, Edition Karthala, Paris, pp.101-109.
- Gaudin, F. (1993), *Pour une socioterminologie. Des problèmes sémantiques aux pratiques institutionnelles*, Publications de l'Univ. de Rouen.

- ISO 704 (2000),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 ISO 10241 (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 ISO 860 (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 Rondeau, G. (1984), Introduction à la terminologie, 2e édition, Gaëtan Morin, Québec.
- Temmerman, R. (2000), *Towards New Ways of Terminology Description, The Sociocognitive approa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y*, Paris.
- Wright, S. E. & Budin, G. eds. (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v.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üster, E. (1974/1981) "L'étude scientifique générale de la terminologie, zone frontalière entre la linguistique, la logique, l'ontologie, l'informatique et les sciences des choses" in *Textes choisies de terminologie*,(1981) ed. G. Rondeau & H. Felber, Gisterm, Québec, pp.55-114.

이현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7
서울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전화번호: 070-7012-2951
전자우편: hjlee3@assist.ac.kr

조동성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전화번호: 02-880-6945
전자우편: dscho@snu.ac.kr

원고 접수일: 2011년 07월 08일
원고 수정일: 2011년 08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1년 08월 23일